

베트남 수출 고성장... FTA 효과 · 현지화 주목

경진원, 전북 기업 베트남 해외통상센터 중소기업 지원 강화

미국·베트남 간 관세 조정과 환적 규제 강화로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며, 베트남이 생산·소비 거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 기업의 전략 수립도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에 대응해 현지 유통과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식품·화장품 등 전략 품목이 소비 수요와 맞물려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베트남 내 농기계·화장품 등 전북 주력 품목의 경쟁력이 현지 수요와 부합하며, 전략적 시장으로서 위상이 강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의 베트남 수출액은 4억2,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8%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농약 및 의약품, 식품, 화장품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모두 현지 소비 트렌드와 높은 적합성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CPTPP, EVFTA, VKFTA 등 총 16건의 FTA 체결국으로, 한국 기업은 다양한 품목에서 낮은 관세율과 간소한 원산지 인증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VKFTA를 활용하면 농기계나 전기·전자 부품 등 전북 주력 품목이 0~5% 수준의 세율로 수출되며, EVFTA는 유럽 수출의 관문 역할도 수행한다.

도시별 소비 트렌드 분석은 수출 전략 수립에 핵심적인 자료로 작용하고 있다.

하노이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가 밀집된 행정 중심지로 프리미엄 소비재 수요가 뚜렷하고, 호찌민은 청년층 비중이 높아 모바일 기반 온라인 소비가 활발하다. 다낭은 관광객과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도시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라이프스타일 제품의 수요가 높다.

전북 기업이 경쟁력을 지닌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등 품목들이 도시별 소비 특성에 부합해 현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하노이 해외통상거점센터가 시장 조사, 바이어 매칭, 통관 자문, 사후 계약 관리까지 전주기 지원에 힘쓰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는 3천여 건의 인과 이여리를 발굴하고, 94건의 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했으며, 3개 기업이 총 5건, 약 2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소기업 수출 계약이 주로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성과는 더욱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진흥원은 향후 품목별 맞춤형 진출 전략과 도시별 소비 트렌드 분석을 기반으로, 현지 유통망과 연결된 입점 프로그램을 확대해 실질 성과 중심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DONYANGNONGSAN COLTD의 황인형 본부장은 “베트남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가격대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전북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화장품 등 일반소비재 제품들도 증가 시장 이상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DONYANGNONGSAN COLTD는 하노이에서 윌마트 등 다수의 체인을 운영하며, 한국 제품을 수입해 유통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현지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등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전북 브랜드 인지도 확대와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는 지난 9일 전북지역도의 지역 주민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전북지역 찾아가는 소통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전북지역 다가가는 소통센터’ 개관

한국전력 중부본부, 지역주민과 소통의 장 마련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는 지난 9일 오후 2시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주민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전북지역 찾아가는 소통센터’ 개관식을 전주시 덕진구 현장에서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서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한국전력과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인 전북지역 다가가는 소통센터 개관을 계기로 전력망 건설 관련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철수 한전 부사장은 “한국전력공사가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 산업을 앞장서 이끌고, 전북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소통센터에는 전북도 지역주민을 위해 편안한 휴식 공간 미팅룸, 북카페, 인생 네컷 코너 등을 구비하여 만남과 소통의 공간도 마련돼 있다.

한전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전력망 건설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력설비 홍보관, 전자파 안전성 체험, 전력설비 경과지역 주민 보상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구축했다.

중기부, 모태펀드 2차 추경 등 조성 AI 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모태펀드 2차 정기 출자공고를 통해 총 3,100억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5,7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5년 2차 추경으로 반영된 ‘NEXT UNICORN Project’를 통해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NEXT UNICORN Project’는 AI·딥테크 분야 유망 기업에 분절적인 뿌려주기식 투자를 넘어 성장 단계별로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분야에 총 3,000억원을 출자하여 5,5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펀드는 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며, ‘스케일업’ 펀드는 AI·딥테크 분야 중소기업에 기업당 평균 100억원 이상의 스케일업 투자를 지원한다. 특히, ‘스케일업’ 펀드는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공공기관이 우수 성과기업으로 추천한 ‘NEXT UNICORN Pool’ 기업에 중점 투자하여, 창업·벤처 지원사업으로 육성한 우수 기업의 스케일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창업초기 소형’ 분야에 100억원을 출자하여 167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오상근 기자

중기부, ‘도메인 AX 스타트업’ 집중 육성

바이오·금융·콘텐츠 등 5대 핵심 분야 AX 스타트업 90개사 공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AI 산업 생태계’ 내에서 특정 산업과 기업 등에 유망 AI 스타트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AX 기술을 공급해 생산성 증대와 경제·사회적 성과 등을 창출하는 핵심 도메인 AX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1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공고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3단계 프로그램의 1단계 ‘Micro-초격차’ 프로그램 중 ‘AI 스타트업 특화지원 사업’이 20: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관련 스타트업과 대기업에서 지속적인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등 현장의 높은 AX 수요를 반영해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추가·확대 편성했다.

최근 AI는 기존 산업의 경쟁구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핵심 수단으로서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AX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AI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AI 스타트업 주도로 핵심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에 혁신 AX 기술을 확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생산성 증가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등 사

업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고로 총 90개의 AX 스타트업을 선발하며, 주요 내용으로 먼저, 바이오 등 AX 기술을 통해 경제·사회적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5대 핵심 도메인의 고도 기술을 보유한 혁신 AI 스타트업 50개사를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에는 도메인 AX 모델 개발과 기술 고도화 등 기술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도메인 특성에 따라 ‘인공지능 융합사업단’ 등 주관기관의 컴퓨팅 자원, 실증장비 등 인프라 활용을 제공한다.

/오상근 기자

바이오 진흥원, 산업혁신형 규제개선으로 지역기업 애로 해소 나서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의 규제특례 확대 의지에 부합하는 적극행정으로 농생명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이르고 있다.

바이오진흥원의 대표적인 규제개선 성공 사례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유통전문판매업 등록 허용을 성공시킨 사례로, 창업보육센터가 건축법

상 연구시설로 분류되어 유통전문판매업이 불허되면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려는 초기 창업 기업들이 사업화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바이오진흥원은 전북도와 협력해 지속적인 건의와 현장 목소리 전달을 이어왔고, 그 결과 2024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창업보육센터 내 사무실에서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당 개정은 식

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5호 항목을 통해 반영, 입주기업의 사업화 촉진에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진흥원은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환경규제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국토계획법에 따라 연구·교육·사업화 구역의 용적률 상한이 150%에서 200%로 견제율은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됐으나, 폐수처리 기준 등 환경규제의 동반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오상근 기자

여름딸기 우수품종, 현장서 확인한다

농진청, 국산 여름딸기 품종 · 후보 현장 평가회 개최

농촌진흥청은 오는 16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국립식량과학원 고품질 농업연구소에서 ‘국산 여름딸기 우수계통 현장 평가회’를 개최한다.

고령지농업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사계성 딸기 품종 연구기관이다.

국내산 딸기는 대부분 9월에 정식한 뒤 11월 말에 첫 수확(축성직형)해 겨울과 봄철에 집중적으로 출하하고,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생산을 중단한다.

하지만 사계성 품종은 여름철 고온 장일(長日照, 일조시간이 12시간 이상) 조건에서도 꽃대가 나와 여름철에도 생딸기를 맛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발 500m 이상 고랭지에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생산된다.

사계성 품종은 고온기에도 장일 조건일 때 꽃대가 만들어지는 개화 특성을 가진 딸기 품종, 국내 여름의 고온

장일 조건에서 개화할 수 있어 주로 여름 작형으로 재배한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여름철 이상고온 환경에서도 안정 생산이 가능한 복합과 및 미과 등 국산 여름딸기 사계성 품종 3종과 ‘대관 7-1호’ 등 품종 후보 계통 5종을 소개하고 재배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전국의 딸기 육종가와 연구기관, 재배 농가, 가공업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모양, 맛, 경도, 향기, 색상 등 특성을 두루 평가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이상고온으로 고품질 내서성 품종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현장 평가회가 농가와 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실용형 품종 개발 가능성을 진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